

서울 관광정보 3,788건을 AI로 세어봤더니, 말레이어 사용자는 76.7%를 못 읽고 있었습니다

AI에게 결론을 묻지 않고 “세어보라”고 시켜서 확인한, 공공 관광 데이터의 빈칸

3,788

전체 콘텐츠(건)

23.3%

말레이어 커버리지

2,907말레이어 사용자가
못 보는 콘텐츠(건)**17**

숙박 분류 전체(건)

① 상황 — 안내문 한 줄에 대한 의심

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공 관광 API 안내문에 “다국어 지원 — 7개 언어”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7개 언어를 “지원한다”는 게, 정말 7개 언어로 다 채워져 있다는 뜻일까요? 확인하려면 수천 건을 일일이 세어야 해서 보통은 여기서 멈춥니다.

② 활용 — 물어보지 않고, 시켰습니다

“이 사이트의 공개된 조회 페이지에서 어권별·분류별 건수를 직접 집계해줘.
네 추측이나 일반론은 필요 없어. 화면에 찍힌 숫자만 가져와.”

AI는 공개 검색 페이지에서 어권 필터와 분류 필터를 하나씩 걸어가며 표시 건수를 읽었습니다. 만나질 걸릴 일이 몇 분에 끝났습니다. 핵심은 “물어보기”가 아니라 “시키기”였습니다.

③ 결과 — 어권별 실제 보유 콘텐츠

어권	건수	커버리지
한국어	3,788	100.0%
영어	3,763	99.3%
일본어	3,546	93.6%
중국어(간체)	3,535	93.3%
중국어(번체)	3,509	92.6%
러시아어	1,370	36.2%
말레이어	881	23.3%

분류별 분포

분류	건수	비중
음식	1,259	33.2%
축제·공연·행사	1,194	31.5%
문화관광	739	19.5%
쇼핑	297	7.8%

체험·역사·자연관광	282	7.4%
숙박	17	0.4%

번역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

말레이어권 여행자 상당수는 무슬림입니다. 전체 콘텐츠의 **33.2%가 음식**인데, 무슬림 여행자에게 음식 정보는 “읽을 수 있는가”보다 “**먹을 수 있는가**”가 먼저입니다. 할랄 여부, 돼지고기·주류 취급, 기도 공간. 이 정보가 없으면 1,259건의 음식 정보는 **번역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빈칸**입니다.

AI가 하지 않은 일 — 이게 더 중요합니다

- 숫자를 지어내지 **않**았습니다. 화면에 표시된 값만 썼습니다.
- 확인되지 않은 것은 “확인되지 **않**음”으로 남겼습니다. “말레이어권 여행자 중 무슬림 비율”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.
- 결론은 숫자를 보고 사람이 냈습니다.

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

① 자기 지역 공공 API·데이터 포털을 하나 고른다 → ② AI에게 “필터를 하나씩 걸어가며 건수를 직접 집계해줘, 추측은 빼고”라고 시킨다 → ③ 나온 표에서 **유난히 작은 칸**을 찾는다 → ④ 그 빈칸 때문에 누가 불편한지를 생각한다.

빈칸은 대개 “**관심이 덜 간 사람들**”이 있는 자리입니다. 저는 말레이어 칸에서 그걸 봤습니다.

출처 및 윤리 ·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공개 조회 페이지의 표시 건수만 집계했으며, 계정·인증이 필요한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. · 모든 수치는 집계 시점(2026년 9월) 화면 표시값이며 추정·보정한 값이 없습니다. ·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. · “말레이어권 여행자 상당수가 무슬림”은 통계 확인이 필요한 배경 설명이며 특정 집단을 단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.